

#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 연구

## A Study on the Books of ‘Sambon Hwayemgyeong of Suchangpan Series’

유 부 현(Boo-Hyeon Yoo)\*

### 〈 목 차 〉

- |                                       |  |
|---------------------------------------|--|
| I. 서 언                                | III.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에<br>대한 새로운 이해 |
| II.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에<br>대한 종래의 이해 | IV. 결 언                                |

### 초 록

본 연구는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을 전체적으로 상호 비교 고찰하여, 이들 판본의 간행시기와 판본 간의 계통 및 저본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은 ‘11세기본’(초간본 추정), ‘壽昌四年本(1098)’ 및 ‘숙종연간본(1096-1105)’, ‘12-13세기본’, ‘海印寺刊本(12-13세기)’ 등 네 가지 종류로 정리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11세기본’(초간본 추정)은 종래 ‘원나라 판본’, ‘12세기본’ 혹은 ‘거란(또는 서하) 계통 판본의 복각본’, ‘숙종연간본(1096-1105)’ 등으로 이해되었던 판본이다.

키워드: 수창판, 화엄경, 삼본 화엄경

###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new examining of the books' period for publication, system,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original script by considering the books of 'Sambon Hwayemgyeong of Suchangpan series' as a whole. As a result, the books of 'Sambon Hwayemgyeong of Suchangpan series' are arranged with four types, '11th century edition'(estimated the first published book), 'Suchangsanyun edition(1098) and Sookjongyeongan edition(1096-1105)', '12th to 13th century edition', and 'Haeinsa Sagan edition(12th-13th century)'. Among them, especially '11th century edition'(estimated the first published book) is the book that has been known as a 'Yüan book', '12th century edition' or 'bokgakbon of the Kitan(or Seoha) line's book', and 'Sookjongyeongan edition (1096-1105)' and so on.

Keywords: Suchangpan, Hwayemgyeong, Sambon hwayemgyeong

\* 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boohyun@daejin.ac.kr)

• 접수일: 2013년 2월 19일 • 최초심사일: 2013년 3월 5일 • 최종심사일: 2013년 3월 26일

## I. 서론

우리나라에는 신라시대의 白紙墨書經<sup>1)</sup>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화엄경 사본과 간본이 필사되고 간행되었다. 특히 고려에서는 ‘三本 화엄경’<sup>2)</sup>이란 이름으로 楮本(불타발타리譯 60卷本), 周本(실차난타譯 80卷本), 貞元本(반아譯 40卷本) 3종의 화엄경이 한 벌로 유통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三本 화엄경’ 가운데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sup>3)</sup>이다. 주지하듯이 고려 제조대장경에 들어 있는 화엄경도 이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을 저본으로 판각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 판본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에 대해서 종래 학계에서는 刊記(發願記), 판본의 상태(장정, 지질, 판각, 판식, 복잡유물 등)에 근거하여 판본의 성격과 그 간행시기를 추정하였다.<sup>4)</sup> 그리고 추정된 판본의 성격과 간행시기에 의거하여 첫째 ‘壽昌四年本(1098) 및 숙종연간본(1096-1105)’, 둘째 ‘12세기본’, 셋째 ‘12-13세기본’, 넷째 ‘海印寺寺刊本’(12-13세기) 그리고 ‘원나라 판본’, ‘고려 판본’, ‘13-14세기 판본’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에 대한 종래의 분석은 주로 그 간행시기에 중점을 두었고, 판본 간의 계통과 저본 관계에 대한 분석은 매우 소략하고, 잘못된 점도 발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을 전체적으로 상호 비교 고찰하여, 이들 판본의 간행시기와 판본 간의 계통 및 저본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을 이해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1) 신라시대의 白紙墨書經인 周本 『大方廣佛華嚴經』은 한국 호암미술관소장본이다. 80권 가운데 제1-10권과 제44-50권까지 모두 17권이 남아 있는데, 754년 황룡사의 연기법사의 발원에 의해 사성된 사본이다.

2) ‘三本 화엄경’이란 명칭은 고려의 玄化寺碑文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三本 화엄경’은 현종 11년(1020)에 대반야경, 금광명경, 묘법연화경 등과 함께 간행되었다(“去庚申(1020)歲……又特命工人雕造大般若經六百卷 并三本華嚴經金光明經妙法蓮華經等印版着於此寺 仍別立號 爲般若經寶永印施十方”(蔡忠順, 玄化寺碑陰記)).

3) 본고에서 지칭한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이란 것은 간본 화엄경 가운데 간행시기가 분명하고 그 刊年이 가장 이른 ‘수창판’ 화엄경(현존하는 ‘수창판’ 화엄경은 전부 壽昌 4년(1098)에 간행되었음)과 동일한 계통의 판본을 지칭한 것이다. 여기에서 ‘동일한 계통의 판본’이란 것은 판각의 성격에 있어서 이들 판본이 동일 계통의 판본을 저본으로 해서 필사 판각된 것이 아니라, 동일 계통의 판본을 저본으로 해서 복각되었음을 의미한다.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현존본으로서 본고에서 연구 대상이 된 판본은 총 34권이다.

4) 여기에 대해서는 각주5) - 각주40)의 내용을 참조바람.

## II.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에 대한 종래의 이해

종래 ‘壽昌四年本(1098) 및 숙종연간본’(1096-1105), ‘12세기본’, ‘12-13세기본’, ‘海印寺寺刊本’(12-13세기) ‘원나라 판본’, ‘고려 판본’, ‘13-14세기 판본’ 등으로 이해된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을 자세히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壽昌四年本(1098) 및 숙종연간본(1096-1105)’으로 이해된 판본 중에서 楮本 화엄경은 제4권(보물 685호)<sup>5)</sup>, 제28권(보물 686호)<sup>6)</sup>, 제33권(개인)<sup>7)</sup>, 제37권(국보 202호)<sup>8)9)</sup>, 제45권 제21장 낱장(국보 206호)<sup>10)</sup> 등 5종이 있고, 周本 화엄경은 제6권(보물 690호)<sup>11)</sup>, 제26권(보물

- 5) ①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간행기록이 없어서 만들어진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문 앞의 여백에 권(卷)·장(張)의 순서를 표시한 것, 먹색, 인쇄상태 등이 1098년에 간행된 『화엄경』 진본 권37(국보 제202호)과 매우 비슷하여 고려 숙종(재위 1096~1105)대에 판각하여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② “권수제부터 제12장의 제20행까지 이르는 부분을 잃었으나, … 版式은 각장에 본문을 24행 … 앞의 餘紙에 ‘楮四十五’와 같이 권차 장차를 표시한 것과 … 등의 諸條件이 국보 제202호로 지정된 고려 숙종 3년(壽昌4, 1083) 간행의 楮本 화엄경 권37과 비교하면 매우 흡사하다. 또 이것들이 같은 佛腹에서 동시에 나온 것임을 고려하면 역시 고려 숙종연간에 각인된 것으로 추정된다.”{천혜봉, 국보(서울 : 한국 브리태니커회사, 1989), p.272}
- 6) “卷首부터 … 결락되어 있으며, … 등의 諸條件이 국보 제202호로 지정된 고려 숙종 3년(壽昌4, 1083) 간행의 楮本 화엄경 권37과 비교하여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같은 佛腹에서 동시에 나왔으므로 이것도 고려의 숙종연간에 刻印된 것으로 추정된다.”{천혜봉, 국보(서울 : 한국 브리태니커회사, 1989), p.272}
- 7) ① “智異山 拯倫寺 住持 暢春의 捨財로 開板된 楮本 卷第33 … 간행년의 표시는 없으나 字體 板式 雕板技法이 또한 李必先의 시주로 새긴 楮本 제37권과) 비슷하다. 위의 해인사 開板本(李必先의 시주로 새긴 楮本 제37권)과 관련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卷帙이 호한한 삼본화엄경을 간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여러 사찰에 배분 각성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서울 : 범우사, 1990), p.84}. ② “(暢春의 捨財로 開板된 楮本 卷第33은) 三南地方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실사하고 복사해 놓았으나, 누구의 所藏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 그 권말에 ‘智異山 拯倫寺住持比丘 暢春祝聖壽之願 開板管譯花嚴經 第一卷’ 이라 있음”{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서울 : 범우사, 1990), p.84의 각주 199}. ③ “圖版 30. 大方廣佛華嚴經 楮本 卷第33 高麗肅宗年間 智異山 拯倫寺板. 個人藏”{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서울 : 범우사, 1990), p.87의 도판 해설내용}.
- 8) ① “현재 전래되고 있는 화엄경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려 숙종 4년(1098)에 박았다는 간기(“高麗國陝州戶長同正 李必先 上報四恩下滋三有之願 施財雕版花嚴經第三十七卷 時壽昌四年五月日記.”)가 있어 아주 귀한 불경이다.”{천혜봉, 국보(서울 : 한국 브리태니커회사, 1989), p.120} ② “각 장에는 본문이 24행 … 본문 앞의 여지에는 ‘楮 三十七九’와 같이 권차 장차를 小字로 새겨두었음을 接紙의 뒷면에서 판독할 수 있다.”{천혜봉, 국보(서울 : 한국 브리태니커회사, 1989), p.271, 272}. ④ “이 책은 이필선의 개인적인 시제에 의해 간행된 寺刊本임에도 불구하고 권수제 아래의 합차 위치에 ‘黃’자가 보이고 있어 의견이 분분한 판본이다. … 이 책의 권두에 나타난 ‘黃’자가 지닌 의미는 보다 세밀한 고증이 필요하나, 잠정적으로 刻手의 성명 중에 성씨 한 글자인 것으로 추정된다.”{문화재청, 문화재대관 국보 전적 삼국 고려시대(서울 : 문화재청, 2009), p.298}.
- 9) “강화경판(筆者註: 再雕藏)은 조성 당시 새로 판하본을 작성하여 조판한 경우가 많았으나, 그 중에 상당수는 기존의 경판을 인경하여 이것을 판하본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 좋은 일례는 k. 79《대방광불화엄경》의 제37권 말미에서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화경판에서 k. 79《대방광불화엄경》의 제37권을 조판할 때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는 《대방광불화엄경》 제37권(筆者註: 국보 202호)의 간기 즉 ‘합천의 호장동정 이필선이 시제하여 화엄경을 조판했다’는 간기만을 단지 삭제하고 그것을 저본으로 조판했기 때문에 그 삭제한 공간이 현재 남아 있으며, 또 양자는 모두 각1장 24줄, 1줄 17자 및 자체, 판식 등이 서로 완전히 동일한 것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김운곤,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서울 : 불교시대사, 2002), p.199}.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1호)

959-2-3호)<sup>12)</sup>, 제38권(보물 1017-3호)<sup>13)</sup>, 제66권(보물 687호)<sup>14)</sup>, 제17권·제52권(보물 688호)<sup>15)</sup> 등 6종이 있으며, 貞元本 화엄경은 제7권(보물 689호)<sup>16)</sup> 1종이 있다.

- 10) ① “대방광불화엄경(晉本): 728판(1318장) 24행 17자 缺板. 고려 肅宗朝板 및 북각판과 朝鮮朝의 보각판으로 혼성. 그 중 숙종판 권45 21장 끝에는 ‘迦耶山海印寺依止僧成軒 特爲天長地久之願 施財開此卷普施 壽昌四年戊寅三月日謹記’가 있음”(천혜봉, 국보(서울 : 한국 브리태니커회사, 1989), p.269). ② “字體 板式 雕版技法이 李必先의 시주로 새긴 晉本 제37권과 동일하며 刀刻이 매우 정교하다.”(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서울 : 범우사, 1990), p.84). ③ 장충식, 『高麗華嚴版畫의 世界』, 아세아문화사, 1982. p.10에 書影이 실려 있다. ④ 개인 소장 인본 낱장의 경우 판수제가 “卽四十五 二十一”로 되어 있다.
- 11) ① “국보 202호와 같은 佛腹에서 나왔을뿐더러 자체나 판식 등이 똑같아 동시대 것으로 추정된다.”(천혜봉, 국보(서울 : 한국 브리태니커회사, 1989), p.124) ② 보물 제690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글씨체, 글을 새긴 목판, 먹색깔, 종이질 등이 『화엄경』 진본 권4(보물 제685호)와 비슷하여 고려 숙종 3년(1098)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③ 보물 제690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고려 전기에 사찰 또는 개인이 간행한 판본이다.” ④ 제4장의 版首 아래 부분에 “戒初”란 刻手名이 새겨져 있다.
- 12) ① 보물 959-2-3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권 머리의 변상도는 해인사 소장 고려판의 화엄경 변상도보다 정교하다. 판각이 뛰어나고 그 시기는 고려 숙종년간(1096-1105)으로 추정된다.” ② 제8장의 판수제 아래 부분에 “子春”, 제12장의 판수제 아래 부분에 “忠正”이란 刻手名이 새겨져 있다.
- 13) ① 보물 제1017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정원본(貞元本) 제2, 38권 ... 고려 숙종 때(재위 1096~1105)의 원본을 참고하여 다시 새긴 해인사의 판본에서 찍어낸 것으로 보이며, 인쇄시기는 12~13세기로 추정된다. 진본(晉本) 제15권 ... 정원본과 같은 판본에서 찍어낸 것으로 보이며, 간행시기도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본(周本) 제38권 ... 마지막장에 충정(忠正)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본문의 체제나 판을 새긴 수법이『대방광불화엄경』권36(국보 제204호)과 같이 뛰어나며, 판을 새긴 시기는 고려 숙종 때(1096~1105)로 추정된다.” ② 보물 제1017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구인사 소장본 진본화엄경 제15권 ... 이 판본은 자체가 매우 치졸함을 보이고 있어, 고려 숙종연간에 판각 인출한 시간판을 저본으로 고려 후기에 복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동일한 판본으로 권10, 28, 38, 53 등 4첩도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주본 화엄경 제38권 ... 이 판본은 자체가 매우 치졸함을 보이고 있어, 고려 숙종연간에 판각 인출한 시간판을 저본으로 고려 후기에 복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판본은 국보 204호(206호의 오류입, 筆者註)로 지정되어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책은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인출 시기는 대략 14세기 후반에 후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동일한 기립사본 권22, 26, 48, 55, 74, 79 등 6첩도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정원본 화엄경 제2, 38권 ... 이 판본은 자체가 매우 치졸함을 보이고 있어, 고려 숙종연간에 판각 인출한 시간판을 저본으로 고려 후기에 복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판본은 국보 206호로 지정되어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책은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인출 시기는 대략 14세기 후반에 후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동일한 판본으로 권7, 20, 24, 31 등 4첩도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구인사본 화엄경은 김민영 구장본으로 고려시대 삼분화엄경 시간본과 대장경에 수록된 판본과 비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③ 周本 화엄경 제38권 제22장 版首 하단에 ‘忠正’이란 각수명이 새겨져 있다.
- 14) “판본의 상태가 국보 202호와 비슷하여 같은 시대 유물로 보여진다.”(천혜봉, 국보(서울 : 한국 브리태니커회사, 1989), p.124)
- 15) ① 보물 제688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 먹색 인쇄 상태등이 1098년에 간행된 晉本 제37권(국보 제202호)과 매우 비슷하여 고려 숙종(1096-1105) 대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국보 202호와 여러 가지가 흡사하다. 그리고 한 부처의 복장에서 나온 점으로 보아 고려 숙종 때의 각인으로 보여진다.”(천혜봉, 국보(서울 : 한국 브리태니커회사, 1989), p.122) ③ 이 周本 제17권, 제52권(조병순, 보물 688호)은 ‘숙종연간본’의 복각본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보물 제688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판수제는 각 장의 제1행과 2행의 경문 사이에 ...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점련(粘連)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이 책은 고려 숙종 때에 판각 인출한 판본을 저본으로 후대에 복각한 판본으로 보인다.”
- 16) “국보 202호와 같은 시대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부처의 복장유물인 동시에 자체나 판식 등이 흡사하다.”(천혜봉, 국보(서울 : 한국 브리태니커회사, 1989), p.129, 274).

그리고 ‘숙종연간본(1096-1105)의 복각본’으로 이해된 판본은 周本 제17권·제52권(보물 688호), 제38권(보물 1017-3호) 등 3종이 있다.

둘째, ‘12세기본’으로 이해된 판본 중에서 周本 화엄경은 제6권(국보 203호)<sup>17)18)</sup>, 제15권(개인)<sup>19)</sup> 등 2종이 있고, 楮本과 貞元本은 현존본이 없는 상태이다.

셋째, ‘12-13세기본’으로 이해된 판본 중에서 楮本 화엄경은 제28권(보물 793-4호)<sup>20)</sup> 1종이 있고, 周本 화엄경은 제22권·제55권(보물 959-2-8·9호)<sup>21)</sup>, 제34권(호림박물관)<sup>22)</sup>, 제36권(국보 204호)<sup>23)24)</sup>, 제48권·제79권(보물 959-2-4·5호)<sup>25)</sup> 등 6종이 있으며, 貞元本 화엄경은 현존본

- 17) 周本 제6권 ① “刀刻이 사뭇 정교하지만, 국보 제202호인 고려 숙종 3년(1098) 간행의 楮本 화엄경 권37과 비교해 보면 字體가 가는 편이고 지질의 古樸度가 좀 떨어진다. … 권말에는 ‘潭陽郡戶長同正田海美亦出母利往願之成’의 墨書識記가 있다. … 이 周本 화엄경은 12세기 무렵의 판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것을 수기법사가 주관한 재조대장경의 周本 화엄경과 對査하여 보면 字體, 行字數, 본문 앞의 譯經別 및 卷張次 표시 방법 등이 서로 꼭 같다. 바로 이 판에서 찍은 책이 재조대장경 周本 화엄경의 底本이 되었던 듯하다. 숙종연간 간행의 17字本 화엄경에서는 그러한 표시 방법을 볼 수 없고 이 간본에서만 유독 볼 수 있으며, 또 그것이 守其와 관련되어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천혜봉, 국보(서울 : 한국 브리태니커회사, 1989), p.122, 272} ②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간행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해인사 대장경본과 글씨체와 새김이 일치하고 있다. 해인사대장경에 포함된 楮本 화엄경을 보고 다시 새겨 12세기경에 찍어낸 것으로 보인다.”(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내용도 동일하다) ③ “이 楮本 권6에는 … 자체는 구양순체를 바탕으로 석각된 구례 화엄사의 화엄석경의 서체를 방불케 하며, 거란본 화엄경의 자체와도 흡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 경문에는 초조본에 보이는 송대 황제의 避諱가 나타나 있지 않아 송판의 복각은 아닌 듯하며, 또한 고려 임금의 피휘도 보이지 않고 있다. 字體는 모두 판본체로 변화되어 있어 10세기 전만 이전에 간행된 판본에서 보이는 사경체자의 특징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이 책은 거란 또는 서하 계통의 판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것으로 보인다.”{문화재청, 문화재 대관 국보 전적 삼국 고려시대(서울 : 문화재청, 2009), p.305}
- 18) “강화경판을 조판할 때 단순히 k. 79<<대방광불화엄경>>만 종전의 印本을 판하본으로 사용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k. 80<<대방광불화엄경>>도 다른 또 하나의 좋은 예이다. 이 경전도 종전의 印本을 판하본으로 사용하였던 예증을 본 경전의 제6권에서 볼 수 있다. 이 두 경전의 제6권을 비교해 보면, 종전 본인 <<대방광불화엄경>>제6권(국보 203호, <<文化財大觀>>(한국문화재보존협회, 1994, 178쪽)에서는 “海東沙門守其藏本이란 소장인이 찍혀 있고 현존 재조대장경의 판식, 자체와 일치하므로 이것이 再雕經의 저본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에는 ‘海東沙門守其藏本’의 印이 있으나, 강화경에서 조판하였던 k. 80<<대방광불화엄경>>제6권의 제1장을 새로 복각할 때는 그것을 삭제하였던 점이 다를 뿐이다.”{김윤근,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서울 : 불교시대사, 2002), p.200}.
- 19) 이 周本 제15권(개인)에는 ‘眞×’라는 刻手名이 새겨져 있다.
- 20) ① 보물 제793-4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경 60권 가운데 권28에 해당하며 간행 시기는 12~13세기로 추정된다.” ② 보물 제793-4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이 책은 60권본 가운데 권 제28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간행한 것이다. … 이 판본은 인쇄상태 등 간행조건으로 보아 12-13세기에 간행된 사찰판본으로 추정된다.”
- 21) 보물 제959-2-8,9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12-13세기의 고려본으로 추정된다.”(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에는 보물 제959호의 해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22) “板首題는 ‘周 三十四 二’로 되어 있다. 매 장은 24행 17자이다. 맨 앞에 변상도가 붙어 있는데, 해인사에 소장된 海印寺高麗刻板보다 새긴 것이 훨씬 정교하다. 국보 204호와 字體, 판식, 판각상태, 판수제, 목색, 인쇄상태, 紙質, 권축상태 등이 흡사한 것으로 미루어 동일한 시기에 찍어낸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까지 알려진 화엄경 변상도 가운데 帳幅의 판화는 이것과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의 것이 거의 전부이다.”{호림박물관, 湖林博物館所藏 佛教美術名品殿(서울 : 청문각, 2002), p.141, 217}
- 23) ① “12世紀~13世紀”, “글자의 크기가 숙종연간 간본과 <海東沙門守其藏本>의 장서인이 찍힌 간본보다 약간 큰 편이고 卷首에 변상도가 붙은 별본이다. 변상도는 해인사 소장의 고려각판 화엄경 구도와 같으나, 이것의 판각이

이 없는 상태이다.

넷째, ‘海印寺寺刊本(12-13세기)’<sup>26)27)28)</sup>으로 이해된 판본 중에서 楮本 화엄경은 제10권(보물 959-2-6호)<sup>29)</sup>, 제15권(보물 1017-2호)<sup>30)</sup>, 제38권(보물 1192호)<sup>31)</sup>, 제53권(보물 959-2-7호)<sup>32)</sup> 등 4종이 있고, 周本 화엄경은 제36권(국보 204호)<sup>33)</sup> 1종이 있으며, 貞元本 화엄경은 제2

월권 정교하다. 그 각각의 시기는 13세기 전기 이전으로 여겨지나, 후쇄인 듯 刻字에 나무결이 다소 나타나고 있다.”(천혜봉, 국보(서울 : 한국 브리태니커회사, 1989), p.123, 272) ② “조병순 소장본 ... 자체 및 지질의 특징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간행된 이필선시제본(국보 202호)과 흡사하여 대략 12세기 무렵에 개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같은 해에 해인사에서 成軒이 시주하여 판각한 목판이 해인사의 寺刊雜板에 들어 있고, 또한 속종연간에 지리산 拯倫寺에서 주지 暢春(필자주: 暢春이 옳다)이 주관하여 간행한 판본도 현존하고 있는데, 이들 판본과도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병순 소장의 해제 대상본은 또한 이러한 판본류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문화재청, 문화재대관 국보 전적 삼국 고려시대(서울 : 문화재청, 2009), p.292) ③ “국보 204호인 권36은 이 판본 권수에 권변상도가 붙어 있는데, 해인사의 화엄변상판과 구도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해인사 사간관에 소장되고 있는 화엄경의 판본일 가능성이 크다.”(장춘식, “大方廣佛華嚴經의 流通本에 대한 고찰.”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립 20주년 기념논문집(서울 : 2001), p.92). ④ 이 周本 제36권은 海印寺寺刊本の 경판과는 異版本이다. 제13장의 판수제 하단에 기재된 각수명이 서로 다르다.

- 24) “周本 화엄경 제36권의 변상은 해인사 소장 판화와 전혀 동일한 구도를 취하고 있으나 그 刻法 또는 판화의 제작 수법이 상이하여 주목된다. 이는 어느 것이 보다 원형 그림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당시 이와 같은 변상의 그림을 기본으로 이를 모사하여 제작되었다고 짐작된다. 그것은 본래의 그림을 가지고 소위 覆刻하는 형식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크기의 목판에 알맞은 변상 그림을 새로이 그렸음이 확실하다. 여기에 대하여는 앞서 소개한 변상(가로 55.5cm, 세로 24cm)가 현존 해인사 판화보다 평균 3~4cm정도 크다는 점에서도 이해된다. 다만 이들이 해인사 판화보다 정교하고 ...”(장춘식, 高麗華嚴版畫의 世界(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2, p.16)
- 25) 보물 제959-2-4, 5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제48권 ... 13세기의 고려본으로 추정된다.”(문화재청, 動產文化財指定報告書(서울 : 문화재청, 1988), p.100에는 “12-13세기 간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79권 ... 제48권과 동일한 판본으로 12-13세기의 고려본으로 추정된다.”(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에는 보물 제959호의 해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26) ① 국보 제206-16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楮本 화엄경의 목판은 해인사고려각판 중의 하나로, 모두 728판으로 되어있다. 현재 해인사 대장경판전 사이에 있는 동·서 사간판전(寺刊版殿)에 보관되어 있다. 이 목판은 ... 끝부분의 기록으로 보아 고려 숙종 3년(1098)에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국보 제206-15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周本 화엄경의 목판은 해인사고려각판 중의 하나로, 모두 408판으로 되어있다.” ③ 국보 제206-17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貞元本 화엄경의 목판은 해인사고려각판 중의 하나로, 모두 941판으로 되어있다.”
- 27) “단적으로 말해서 이들(筆者註: 海印寺寺刊本) 삼분화엄경과 변상판화들은 壽昌本 화엄경이나 변상을 지닌 周本 화엄경 제36권보다 인쇄 기술사적 측면에 있어서 뒤지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들이 지닌 刀刻이나 또는 판화의 刻法이 덜 세련되고 어딘지 거친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으로도 논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제조 장경이 완성되는 고종 38년(1251)이후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 따라서 이들 삼분화엄경은 수창연간에 개판된 해인사본의 유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개판의 시기는 수창 4년(1098) 이후에서부터 제조 장경의 조조가 시작되는 13세기 이후로 넓게 잡아두어야 하리라 본다.”(장춘식, 高麗華嚴版畫의 世界(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2), p.14)
- 28) “李智冠은 『韓國佛敎所依經典研究』(p.324)에서 해인사의 삼분화엄경이 壽昌板을 복각한 것으로 보았다”(장춘식, 高麗華嚴版畫의 世界,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2) p.19).
- 29) 보물 제959-2-6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해인사 사간판 가운데 진본 화엄경 판본으로 12-13세기 간행으로 추정된다.”
- 30) 각주 12) 참조.
- 31) 보물 제1192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고려 숙종대(재위 1096~1105)에 간행된 목판본을 보고 해인사에서 고려말에 다시 새겨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권·제38권(보물 1017-1호)<sup>34)</sup>, 제20권(보물 1083호)<sup>35)</sup>, 제24권(보물 1146호)<sup>36)</sup>, 제31권(보물 1154호)<sup>37)</sup> 등 5종이 있다.

다섯째, 기타 판본으로서 ‘원나라 판본’으로 이해된 것은 旣本 제36권(보물 1580호)<sup>38)</sup> 1종이 있고, 종래 ‘고려 판본’으로 이해된 것은 旣本 제53권(보물 1736호)<sup>39)</sup> 1종이 있으며, 종래 ‘13-14세기 판본’으로 이해된 것은 周本 제74권(보물 959-2-10호)<sup>40)</sup> 1종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서 기술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 “‘壽昌版 계열 三本 華嚴經’의 판본에 대한 종래의 이해”와 같다.

- 
- 32) 보물 제959-2-7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해인사 사간판 가운데 진본 화엄경 판본으로 12-13세기 간행으로 추정된다.”
- 33) 각주 22-③) 참조.
- 34) 각주 12) 참조.
- 35) ① 보물 제1083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고려 숙종(재위 1096~1105)때의 판을 원본으로 하여 이후에 다시 새긴 것으로 보이는 해인사의 판본이며, 찍어낸 시기는 13~14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② 보물 제1083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이 판본은 ... 고려 전기 목판본의 특징을 나타내준다. 그러나 판각기법과 제작 품위가 떨어짐을 고려하면 이 전본(傳本)은 그 뒤 13-14세기 전기에 번각된 것으로 여겨진다.
- 36) 보물 제1146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이 책은 해인사고려각판(국보 제206호)에서 찍어낸 것으로, 판을 새긴 시기는 12~13세기로 추정되며, 찍어낸 시기는 표지장식·종이질·인쇄상태 등으로 볼 때 14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 37) ① 보물 제1154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이 책은 고려 숙종때에 간행한 해인사고려각판(국보 제206호)에서 찍어낸 것으로, 간행 시기는 13~14세기로 추정된다.”(필자주: 내용에 오류가 있는 듯 하다) ② 보물 제1154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이 판본은 고려 숙종연간에 간행한 판본의 복각본으로 보이는 국보 제206호 해인사 고려각판에서 찍어낸 판본으로, 그 간행 시기는 13~14세기로 추정된다.”
- 38) “현전한 삼분화엄경의 판수계를 보면, 대부분 ‘旣’, ‘周’, ‘貞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일부에 ‘旣經’, ‘周經’, ‘貞元經’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크게는 두 계통의 판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래 수국사의 불복장유물 중 원나라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되는 진본 권36이 발견되었는데, 이 책의 권수에는 ‘旣經’으로 표기되어 있다.”(문화재청, 문화재대관 국보 전적 삼국 고려시대(서울 : 문화재청, 2009), p.171)
- 39)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旣本 가운데 권53의 1권1축으로 ... 접린 부분에는 ‘旣 五十三’으로 역본 및 권차가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장차가 기재되어 있다. 간기는 없다. ... 권두제 아래에 “宙”자 函次가 적혀있는데 이는 재조대장경에서는 『大般若波羅蜜多經』에 해당하는 함차로서 『大方廣佛華嚴經』 진본 권53의 “道”자와 차이가 있어 화엄경만을 별도로 간행한 판본의 사찰본으로 판단된다. 같은 판본이 보이지 않는 고려판이라는 점에서 고려시대 불교 및 서지학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에는 보물 제1736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40) 보물 제959-2-10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13-14세기에 간행된 고려본으로 추정된다.”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1호)

〈표 1〉 ‘壽昌版 계열 三本 華嚴經’의 판본에 대한 종래의 이해

	①	①-1	②	③	④	⑤ 기타
	昌四年(1098)本 및 속종연간(1096-1105)本	속종연간본의 복각본	12세기본	12-13세기본	海印寺寺刊本 12-13세기	원나라 판본 고려 판본 13-14세기본
晉本	제4권 (보물 685호) 질호: 권수결실				제10권 (보물 959-2-6호)	제36권 (보물 1580호) (원나라 판본)
	제28권 (보물 686호) 질호: 권수결실			제28권 (보물 793-4호)	제15권 (보물 1017-2호)	제53권 (보물 1736호) 질호: 宙 (고려 판본)
	제33권 (개인) 관수제: 미확인 질호: 미확인 發願記: “拯倫寺住持”				제38권 (보물 1192호)	
	제37권 (국보 202호) 질호: 黃 發願記: “壽昌四年五月”				제53권 (보물 959-2-7호)	
	제45권 제21장 날장(국보 206호) 질호: 미상 發願記: “壽昌四年三月”					
周本	제6권 (보물 690호) 질호: 권수결실		제6권 (국보 203호) 藏書印: “海東沙門 守其藏本” 墨書記 “田海美亦出”			
	제17권, 제52권 (보물 688호) 질호: 권수결실	제17권, 제52권 (보물 688호) 질호: 권수결실				
	제26권 (보물 959-2-3호) 變相圖 있음		제15권 (개인소장)	제22, 55권 (보물 959-2-8,9호)		제74권 (보물 959-2-10호) (13-14세기본)
	제38권 (보물 1017-3호)	제38권 (보물 1017-3호)		제34권 (호림박물관) 變相圖 있음		
	제66권 (보물 687호) 질호: 권수결실			제36권 (국보 204호) 變相圖 있음	제36권 (국보 204호) 變相圖 있음	
				제48권, 제79권 (보물 959-2-4,5호) 질호: 없음		
貞元本	제7권 (보물 689호) 질호: 권수결실				제2,38권 (보물 1017-1호)	
					제20권 (보물 1083호)	
					제24권 (보물 1146호)	
				제31권 (보물 1154호)		



### Ⅲ.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에 대한 새로운 이해

여기에서는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을 전체적으로 상호 비교 고찰하여, 이들 판본의 간행시기와 판본 간의 계통 및 저본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판본의 외형적 요소인 版首에 기재된 사항(판수제, 권차, 장차) 및 기재 형식, 卷首에 기재된 帙號, 간기(발원기), 글자의 모양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살펴본 바,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은 다음과 같이 ‘11세기본’, ‘수창본 및 숙종연간본’, ‘12-13세기본’, ‘해인사 사간본’, ‘再雕藏本’, ‘未詳本’ 등 여섯 종류로 분석 정리되었다.

첫째, ‘11세기본’<sup>41)</sup>은 版首에 “周經第× ×幅”과 같은 양식으로 經名, 卷次, 張次가 기재되어 있고, 卷首의 천자문 질호는 없으며, 변상도는 들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글자의 모양이 모든 판본 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완전한 것이 그 특징이다.

둘째, ‘수창본 및 숙종연간본’은 版首에 “周× ×”과 같은 양식으로 經名, 卷次, 張次가 기재되어 있고, 변상도는 없다. 그리고 ‘수창본’의 卷首에는 사간관 천자문 질호가 있다(단 ‘숙종연간본’은 미상이다). 또한 ‘수창본’은 刊記가 있고, ‘숙종연간본’은 간기가 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 판본의 글자 모양이 ‘11세기본’(初刊本 추정)으로 추정된 판본보다 정교하지 못하고 약간 거칠다는 사실이다. 이로 볼 때 이들 판본은 ‘11세기본’을 저본으로 해서 복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12-13세기본’은 版首에 “周× ×”과 같은 양식으로 經名, 卷次, 張次가 기재되어 있고, 변상도가 있으며, 卷首에는 천자문 질호가 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

넷째, ‘해인사 사간본’은 版首에 “周× ×”과 같은 양식으로 經名, 卷次, 張次가 기재되어 있고, 변상도가 있으며, 卷首에는 천자문 질호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이 판본은 해인사에서 판각된 경판에서 인출된 것이다.

41) ‘11세기본’이란 명칭은 본고에서 처음으로 명명된 것이다. ① ‘11세기본’(初刊本 추정)으로 추정된 판본의 版首에 기재된 내용(板首題, 卷次, 張次)은 모두 “周經第× ×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卷首의 천자문 질호는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양식은 이들 판본과 다른 여타의 판본들과 그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 판본의 글자 모양이 ‘수창본 및 숙종연간본’을 비롯한 다른 여타 판본의 글자 모양보다 가장 완전하고 정교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들 판본이 ‘수창본 및 숙종연간본’의 판본보다 후에 간행된 판본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간행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판본이 간행된 시기는 수창 4년(1098) 및 숙종연간(1096-1105) 이전인 11세기 정도로 추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더 나아가 이들 판본은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초간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혹 이들 판본이 開城 玄化寺碑文에 등장하는 삼분화엄경 즉 현종 11년(1020)에 간행된 현화사판 삼분화엄경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② 周本 제26권(기림사, 보물 959-2-3호) 제12장의 판수제 아래 부분에 “忠正”이란 刻手名이 새겨져 있는데, 周本 제38권(구인사, 보물 1017-3호) 제22장 版首 하단에도 “忠正”이란 각수명이 새겨져 있다. ③ 변상도는 周本 제26권(보물 959-2-3호)에만 들어 있다.

다섯째, ‘再雕藏本’은 版首에 “周經第× 第×幅”과 같은 양식으로 經名, 卷次, 張次가 기재되어 있고, 변상도가 없으며, 卷首에는 대장경판 천자문 질호가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여섯째, ‘未詳本’은 판본의 간행 시기와 성격이 미상이다. 단 版首가 아닌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周× ×”과 같은 양식으로 經名, 卷次, 張次가 기재되어 있고, 변상도는 없으며, 卷首에는 천자문 질호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이 판본의 간행시기와 판본의 성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판본을 ‘未詳本’으로 호칭하고자 한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 “壽昌版 계열 三本 華嚴經’ 판본의 외형적 요소”와 같다.

<표 2> ‘壽昌版 계열 三本 華嚴經’ 판본의 외형적 요소

판본	요소	版首의 기재 내용	卷首의 천자문 질호	변상도	비고
① 11세기본		周經第× ×幅	없음	있음 / 없음	글자의 모양이 가장 정교하고 완전함
② 수창본 및 속종연간본		周× ×	있음(사간판 질호) / 미상	없음	수창본은 刊記가 있고, 속종연간본은 간기가 없음
③ 12-13세기본		周× ×	없음	있음	
④ 해인사 사간본		周× ×	없음	있음	
⑤ 再雕藏本		周經第× 第×幅	있음(대장경판 질호)	없음	
⑥ 未詳本		관수제(周× ×)가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있음	없음	없음	이들 판본은 간행시기는 미상이지만, 관수제의 상태로 보아 같은 종류의 판본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본고에서 그 판본의 성격이 새롭게 추정되거나 판단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원나라 판본’<sup>42)</sup>으로 이해되었던 旣本 제36권(보물 1580호)<sup>43)</sup>, 12세기본<sup>44)</sup> 그리고 거란 또는 서하 계통 판본의 복각본<sup>45)</sup>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6권(국보 203호), 속종연간본<sup>46)</sup>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26권(보물 959-2-3호), 속종연간본<sup>47)</sup> 그리고 속종연간본의 복각본<sup>48)</sup>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38권(보물 1017-3호)<sup>49)</sup> 등은 모두 11세기본으로서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 판본의 初刊本으로서<sup>50)</sup> 재조장본의 저본으로 판단된다.<sup>51)</sup> 본고에서 ‘11세기본’(初刊本 추정)으

42) 각주 37) 참조.

43) 旣本 제36권(수국사, 보물 1580호)의 본문 내용은 완전한 상태이다. 그러나 권수의 경우 권수제는 경명 2字(‘大方’)와 譯者名 2字(‘東晉’)만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한 卷首의 앞부분은 찢어진 채로 결실된 상태이다.

44) 각주 16)-② 참조.

45) 각주 16)-③ 참조.

46) 각주 11) 참조.

47) 각주 12)-① 참조.

48) 각주 12)-② 참조.

49) 周本 제38권(구인사, 보물 1017-3호) 제22장 版首 하단에 ‘忠正’이란 각수명이 새겨져 있다.

50) 각주 40) 참조.

로 추정된 판본과 ‘제조장본’ 두 본만이 板首의 기재 사항(판수제, 권차, 장차)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그 위치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자 모양에 있어서 두 본 모두 매우 정교하고 완전한 상태이다. 단 섬세함은 제조장본이 ‘11세기본’(初刊本 추정)보다 약간 떨어진다. 이로 볼 때 제조장본은 이 ‘11세기본’을 저본으로 해서 복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종래 ‘제조장본의 저본’<sup>52)</sup>으로 이해되었던 晉本 제37권(국보 202호)<sup>53)</sup>은 제조장본의 저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晉本 제37권(국보 202호인 壽昌四年本)을 비롯한 ‘壽昌四年本’과 ‘제조장본’은 <표 2>에 보이듯이 版首의 기재 형식이 다르다. 또한 글자의 모양에 있어서 ‘제조장본’이 ‘壽昌四年本’보다 완전하고 정교하다. 따라서 ‘壽昌四年本’이 ‘제조장본’의 저본이 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본고에서 제조장본의 저본은 ‘11세기본’(初刊本 추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종래 ‘고려 판본’<sup>54)</sup>으로 이해되었던 晉本 제53권(보물 1736호)은 ‘수창본 및 숙종연간본’으로 판단된다. 晉本 제53권(부소암, 보물 1736호)은 ‘수창본(1098) 및 숙종연간본(1096-1105)’의 판본과 版首에 기재된 내용(板首題, 卷次, 張次)이 동일하고(“周× ×”), 卷首에는 천자문 질호(사간판 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sup>55)</sup> 이로 볼 때 晉本 제53권(보물 1736호)은 ‘수창본(1098) 및 숙종연간본(1096-1105)’의 판본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넷째, 종래 ‘12-13세기본’<sup>56)</sup> 또는 ‘海印寺寺刊本’<sup>57)</sup>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36권(국보 204호)은 ‘海印寺寺刊本’이 아니고<sup>58)</sup>, ‘12-13세기본’으로 판단된다. 이 周本 제36권(국보 204호) 제13장의 판수제 하단에 기재된 刻手名과 海印寺寺刊本の 周本 제36권 제13장의 판수제 하단에 기재된 각수명이 서로 다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周本 제36권은 海印寺寺刊本과는 異版本으로서 ‘12-13세기본’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종래 ‘12-13세기본’으로 이해되었던 晉本 제28권(보물 793-4호)<sup>59)</sup>, 周本 제22권(보물 959-2-8호)<sup>60)</sup>, 周本 제55권(보물 959-2-9호)<sup>61)</sup> 그리고 ‘13-14세기본’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74권(보물 959-2-10호)<sup>62)</sup>은 ‘海印寺寺刊本(12~13세기)’으로 판단된다. 晉本 제28권(보물 제

51) 단 周本 제6권(조병순, 국보 203호)의 경우 종래 그 간행시기에 있어서는 ‘12세기본’으로 이해하였지만, 판본의 계통에 있어서는 이미 ‘제조장본’의 저본으로 추정되었던 것이다(각주 16)-① 참조).

52) 각주 8) 참조.

53) 각주 16)-① 참조.

54) 각주 38) 참조.

55) <표 2> 참조.

56) 각주 22)-① 참조.

57) 각주 22)-③ 참조.

58) 각주 22)-④ 참조.

59) 각주 19) 참조.

60) 각주 20) 참조.

61) 각주 20) 참조.

793-4호)의 경우 海印寺에 소장되어 있는 經板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데 제1장의 경우 경판의 균열로 인한 글자의 훼손까지도 일치하고 있다. 周本 제22권·제55권(보물 959-2-8·9호)의 경우 海印寺 經板과 刻手名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고, 제22권 제8, 9장의 경우 경판의 균열로 인한 글자의 훼손까지도 일치하고 있다. 周本 제74권(보물 제959-2-10호)의 경우 海印寺에 소장되어 있는 經板과 板首題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여섯째, ‘숙종연간본’<sup>63)</sup> 또는 ‘숙종연간본의 복각본’<sup>64)</sup>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17권·제52권(보물 688호)과 ‘12-13세기본’<sup>65)</sup>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48권·제79권(보물959-2-4·5호) 등은 그 간행시기와 판본의 성격이 미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판본을 ‘未詳本’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한편 이들 판본은 판수제가 공통적으로 본문의 제1행과 2행 사이에 있다. 이로 볼 때 이들 판본은 간행시기는 미상이지만 같은 종류의 판본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3> “새롭게 추정된 ‘壽昌版 계열 三本 華嚴經’ 판본의 성격”과 같다.

<표 3> 새롭게 추정된 ‘壽昌版 계열 三本 華嚴經’ 판본의 성격

판본	이해	종래의 이해	새로운 이해
晉本 제36권(보물 1580호)		원나라 판본	11세기본으로서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 판본의 初刊本으로서 재조장본의 저본으로 판단됨
周本 제6권(국보 203호)		① 12세기본 ② 거란 또는 서하 계통 판본의 복각본	
周本 제15권(개인소장)			
周本 제26권(보물 959-2-3호)		숙종연간본	
周本 제38권(보물 1017-3호)		① 숙종연간본 ② 숙종연간본의 복각본	
晉本 제37권(국보 202호)		재조장본의 저본	재조장본의 저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晉本 제53권(보물 1736호)		고려 판본	수장본 및 숙종연간본으로 판단됨
周本 제36권(국보 204호)		① 12-13세기본 ② 海印寺寺刊本	12-13세기본으로 판단됨
晉本 제28권(보물 793-4호)		12-13세기본	海印寺寺刊本(12~13세기)으로 판단됨
周本 제22권(보물 959-2-8호)		12-13세기본	
周本 제55권(보물 959-2-9호)		12-13세기본	
周本 제74권(보물 959-2-10호)		13-14세기본	
周本 제17권·제52권(보물 688호)		① 숙종연간본 ② 숙종연간본의 복각본	이들 판본은 판수제가 본문의제1행과 2행 사이에 있다. 이로 볼 때 이들 판본은 간행시기는 미상이지만 같은 종류의 판본으로 추정됨
周本 제48권·제79권(보물959-2-4,5호)		12-13세기본	

62) 각주 39) 참조.

63) 각주 14)-① 참조.

64) 각주 14)-② 참조.

65) 각주 24) 참조.

끝으로 본고에서 그 판본의 성격이 새롭게 추정되거나 판단된 내용을 반영하여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4> “‘壽昌版 계열 三本 華嚴經’의 판본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같다.

<표 4> ‘壽昌版 계열 三本 華嚴經’의 판본에 대한 새로운 이해

	①	②	③	④	⑤	⑥
판본	11세기본 <sup>66)</sup> (初刊本 추정)	壽昌四年本 (1098) 및 숙종연간본 (1096-1105)	12-13세기본	海印寺寺刊本 <sup>67)</sup> (12~13세기)	再雕藏 (1245)	未詳本 <sup>68)</sup>
版首題	晉經 周經 貞元經(?)	晉 周 貞元	晉(?) 周 貞元(?)	晉 周 貞元/貞	晉經 周經 貞元經	周 <sup>69)</sup>
卷首 帙號	없음	있음 / 미상	없음	없음	있음	없음
變相 版畫	없음 /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晉本	제36권 (보물 1580호)	제4권 (보물 685호) 질호: 권수결실		제10권 (보물 959-2-6호)		
		제27권 (개인 소장) 질호: 亥				
		제28권 (보물 686호) 질호: 권수결실		제28권 (보물 793-4호)		
		제33권 (개인) 관수제: 미확인 질호: 미확인 發願記: “拯倫寺住持”		제15권 (보물 1017-2호)		
		제37권 (국보 202호) 질호: 黃 發願記: “壽昌四年五月”		제38권 (보물 1192호)		
		제45권 제21장 날장(국보 206호) 질호: 미상 發願記: “壽昌四年三月”		제53권 (보물 959-2-7호)		
	제53권 (보물 1736호) 질호: 宙					

66) 이 ‘11세기본’(初刊本 추정)은 종래 ‘12세기본’으로 인식되었던 판본이다.

67) ‘海印寺寺刊本(12~13세기)’은 현재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寺刊板에서 인출되었던 판본이다.

68) 이 ‘未詳本’은 종래 ‘숙종연간본’, ‘숙종연간본의 복각본’, ‘12-13세기본’ 등으로 인식되었던 판본이다.

69) 周本 제17, 52권(조병순, 보물 688호)과 周本 제48, 79권(기림사, 보물959-2-4,5호)은 관수제가 제1행과 2행 사이에 있어 그 양식이 다른 여타의 판본들과는 다르다.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1호)

周本	제6권 (국보 203호) 藏書印: “海東沙門 守其藏本” 墨書記: “田海美亦出” 刻手: 戒初	제6권 (보물 690호) 질호: 권수결실				
	제15권 (개인 소장) 刻手: 眞×	제66권 (보물 687호) 질호: 권수결실		제22, 55권 (보물959-2-8,9호)		제17권, 52권 (보물 688호) 질호: 권수결실
	제26권 (보물 959-2-3호) 變相圖 있음 刻手: 子春, 忠正		제34권 (호림박물관) 變相圖 있음	제74권 (보물959-2-10호)		제48권, 제79권 (보물 959-2-4,5호) 질호: 없음
	제38권 (보물1017-3호) 刻手: 忠正		제36권 (국보 204호) 變相圖 있음			
貞元本		제7권 (보물 689호) 질호: 권수결실		제2, 38권 (보물 1017-1호)		
				제20권 (보물 1083호)		
				제24권 (보물 1146호)		
				제31권 (보물 1154호)		

#### IV. 결 언

본 연구는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을 전체적으로 상호 비교 고찰하여, 이들 판본의 간행시기와 판본 간의 계통 및 저본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원나라 판본’으로 이해되었던 旣本 제36권(수국사, 보물 1580호), ‘제조장본’의 저본(판하본)으로 인식되었던 旣本 제37권{아단문고, 국보 202호, 壽昌四年本(1098)}, ‘12세기본’ 혹은 ‘거란(또는 서하) 계통 판본의 복각본’으로 여겼던 周本 제6권(조병순, 국보 203호), ‘숙종연간본(1096-1105)’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26권(기림사, 보물 959-2-3호)과 ‘숙종연간본’ 또는 ‘숙종연간본의 복각본’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38권(구인사, 보물 1017-3호) 등은 본 연구에서 모두 ‘11세기본’으로서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 판본의 初刊本으로 추정되었고 또한 이들 판본은 ‘제조장본’{고종 32년(1245)}의 저본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제조장본의 저본(판하본)으로 인식되었던 旣本 제37권{아단문고, 국보 202호, 壽昌四年本(1098)}은 제조장본의 저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부록〉 “11세기본” 晉本 제36권(보물 1580호), 周本 제15권(개인소장)의 書影”

<p>晉本 제36권(보물 1580호)의 卷首 앞부분</p>	<p>晉本 제36권(보물 1580호)의 卷末 뒷부분</p>
<p>寶王如來性起品第三十二之四 佛子云何菩薩摩訶薩知見如來應供等正 覺大般涅槃此菩薩摩訶薩欲知見如來應 供等正覺大般涅槃者當知是知如般涅 槃如來大般涅槃亦復如是如實際如法界 如虛空界如實性如離欲際如無相際如我 性際如一切法性際如真實際般涅槃如來 大般涅槃亦復如是何以故涅槃非生滅法 若法不生當知不滅去無所至佛子如來應 供等正覺不為菩薩演說顯現如來究竟涅</p>	<p>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六 開行成就衆生佛子是為菩薩摩訶薩十種 成就衆生若菩薩摩訶薩安住此法則能成 就一切衆生 感慕<small>下莫故切</small> 周訖<small>下居乙切</small> 華鬚<small>下相俞切</small> 稟受<small>上筆錦切</small> 少植<small>下常職切</small> 芥子<small>上古拜切</small> 嘗味<small>上市羊切</small> 聞顯<small>下許救切</small> 稱譽<small>下羊茹切</small> 奮迅<small>上方間切</small> 淳熟<small>上當倫切</small> 忿諍<small>上匹間切</small> <small>下私開切</small> <small>下別逆切</small></p>
<p>周本 제15권(개인소장)의 卷首 앞부분</p>	<p>周本 제15권(개인소장)의 제2장 앞부분</p>
<p>賢首品第十二之二 有勝三昧名安樂 放大光明不思議 所放光明名善現 必令獲益不虛捐 彼先示現於諸佛 亦示佛塔及形像 又放光明名照耀 所有闇障靡不除</p> <p>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五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翻</p> <p>能普救一切羣生 今其見者 若有衆生遇此 因是得成無上會 示法示僧示 是故得成此光明 映蔽一切諸天光 普為衆生作饒益</p>	<p>則能以佛甘露雨 惠施池井及泉流 毀若五欲讚禪定 又放光明名歡喜 今其愛慕佛菩提 造立如來大悲像 恒歎最勝諸功德 又放光明名愛樂 令其心樂於諸佛 若常心樂於諸佛 普咸此開諸渴愛 專求無上菩提道 是故得成此光明 此光能覺一切衆 發心願證無師道 衆相莊嚴坐華座 是故得成此光明 此光能覺一切衆 及以樂法樂衆僧 及以樂法樂衆僧</p>

셋째, ‘고려 판본’으로만 이해되었던 晉本 제53권(부소암, 보물 1736호)은 ‘수창본(1098) 및 속 종연간본(1096-1105)’에 해당되는 판본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12-13세기본' 또는 '海印寺寺刊本(12~13세기)'으로 이해되기도 했던 周本 제36권(조병순, 국보 204호)은 '海印寺寺刊本(12~13세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12-13세기본'으로 이해되었던 倂本 제28권(월정사, 보물 793-4호), 周本 제22권(기림사, 보물 959-2-8호), 周本 제55권(기림사, 보물 959-2-9호) 그리고 '13-14세기본'으로 인식되었던 周本 제74권(기림사, 보물 959-2-10호)은 모두 '海印寺寺刊本(12~13세기)'인 것으로 구명되었다.

여섯째, '숙종연간본' 또는 '숙종연간본의 복각본'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17, 52권(조병순, 보물 688호)과 '12-13세기본'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48, 79권(기림사, 보물 959-2-4,5호)은 그 간행시기와 판본의 성격이 미상이기 때문에 '未詳本'으로 분류하였지만, 이들 판본의 판수제가 공통적으로 본문의 제1행과 2행 사이에 있는 특징에 의거하여 같은 종류의 판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 참고문헌

- 김윤곤.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서울 : 불교시대사, 2002.  
문화재관리국.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 서울 : 문화재관리국, 1988.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문화재청. 문화재대관 국보 전적 삼국 고려시대. 서울 : 문화재청, 2009.  
장충식. 고려화엄판화의 세계.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2.  
천혜봉. 국보. 서울: 한국 브리태니커회사, 1989.  
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 서울 : 범우사, 1990.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eon, Hye bong. *Hangukjeonjeokinsoisa*, Beomwoosa, 1990.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oonhwajaedaegwan Gookbo Jeonjeok Samgook Goryosidae*, 2009.  
Explanations of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in the Websit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Explanations of National Memory Heritage Service in the Websit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Cheon, Hye bong. *Gookbo(Seoye · Jeonjeok)*, Korea Britannica Corporation, 1989.



- Jang, Choongshik. *Koryohwayempanhwai Segye*, Aseamoonhwas, 1982.  
Kim, Yoongon. *Koryodaejanggyeongui Saeroun Leehae*, Bulgyosidaesa, 2002.  
The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Dongsanmoonhwajaejjeongbogoseo*, 1988.

